

# ‘근대화’의 폭력과 야만

##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현장을 가다

글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현재 성남시청인 이곳은 8·10 사건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였던 광주직할 성남출장소가 있던 자리였다.



1969년 5월 2일,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한밤중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의 한 야산지대에 트럭 몇 대가 멈춰 섰다. 서울시 청소용 차량인 이 트럭들은 뒤에 실린 물건들을 한 곳에 황급히 부려 놓고는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처음에 그것은 거대한 쓰레기더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곧 검은 유령처럼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름에 가린 달이 허공에 등실 떠오르자 그것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것은 수십 명의 어른과 아이, 가재도구와 이불보따리, 식기와 곡식자루가 뒤섞인 그들의 남루한 세간이었다. 주변의 사물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곳이 ‘일자리 걱정 없는 신천지(新天地)’가 아니라 난방은커녕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집단수용소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렇게나 깎아놓은 울퉁불퉁한 노면에는 햇볕을 간신히 가릴 만한 대형 천막 몇 개가 설치돼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천막 주변을 서성이던 어른들은 한기에 잠이 깬 아이들이 울어대자 서둘러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황무지에서 새 삶을 개간해야 할 운명에 놓인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유형의 길을 떠난 수인(囚人)도 전쟁과 천재지변을 당한 피난민도 나환자들도 아니었다. 서울 청계천변 무허가 판잣집에서 강제 철거당한 빈민들이었다. ‘인간의 땅’에서 추방된 이들 앞에는 ‘짐승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1971년 8월 10일, 굶은비 내리는 경기도 성남출장소 뒷산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삼과 곡괭이를 권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배가 고파 못살겠다.”

관공서가 불타고 경찰 지프가 하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민들의 폭동’이라 했다. 관제 언론은 이 분노의 시간을 ‘빗속의 난동 6시간’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몸부림, 허허벌판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무허가 인생’들의 인간 선언이었다.

### ‘개발’이란 이름의 테러리즘

하동근 씨(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6세)를 만난 건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그는 성남시청 정문 옆 공터에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받쳐 든 그의 모습이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고 말하는 듯했다. 1970년 이곳에 이주한 뒤로 한 번도 성남을 떠난 적이 없다는 그는 30여 년 동안 지역운동에 몸담아 온 ‘성남통’이다. 그는 대뜸 성남시청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은 바로 8·10 사건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였던 광주직할 성남출장소가 있던 자리였다.

“당시, 여기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성남초등학교 뒤에 성남출장소가 있었어요. 이 성남시청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 일대가 다 그때 수만 명이 모여들었던 출장소 뒷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던 성남교회. 하동근 씨는 당시 이 교회 전성천 목사가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주곤 했는데 어느날엔 교회 앞에 20구의 시체가 버려지기도 했다는 말을 전했다.

산이에요. 지금은 다 택지로 개발됐지만 전에는 한동안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지요. 8·10 사건 후 성남출장소가 계속 확대·개편되다가 1973년 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성남시청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분노의 표적이었던 성남출장소 건물은 간데없고 야트막한 야산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만 무심하게 있을 뿐이다.

청사를 등지고 대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성남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왔다. 도심의 풍경은 서울 주변의 어느 위성 도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대로, 그 좌우에 사열하듯 늘어선 고층 빌딩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했던가. 인구 100만을 거느린 거대 도시 성남 어느 곳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전벽해란 말을 가장 잘 실감

할 수 있는 곳이 성남이에요.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모든 게 변했거든요. 하여간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남한산성과 영장산을 두 축으로 하여 참나무·상수리나무·오리나무들이 무성하게 군락을 이룬 산간 벽지였다. 주민들은 구릉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계단식 논을 부치거나, 숲을 구워 인근 송파장에 내다팔았다. 그러던 1969년 3월 4일, 지금의 중앙시장 건너 산등성이에 수십 대의 불도저가 나타나고 캐터필러 굉음이 지축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평화도 깨졌다.

박정희 정권은 하천변에 거미줄처럼 퍼진 빈민굴이 ‘산입입국’, ‘수출입국’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골치 아픈 ‘무허가 삶’ 들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웠다. 외국 손님들 눈에 띄지 않

면서도 안보의 시각계층인 빈민들의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곳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3백 50만 평 부지였다. 서울시는 이곳에 인구 50만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택지 정지작업도 마무리되지 않고 수용시설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철거민들을 이주 시켰다. 신도시 건설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입주 후건설’이었다.

“성남은 동에서 서쪽으로 구릉이 셋이 있어요. 이 구릉의 꺾질만 벗겨가지고 즐긔고 ‘이게 택지다.’ 한 거예요. 꺾질만 벗겼다는 건 당시 택지 개발을 맡았던 초석건설에서 나온 말이에요. 꺾질 벗길 돈밖에 안 받았는데 도로를 더 낮게 한다든가 땅을 더 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빈민에 대한 국가 관리통제정책은 박정희 정권 때가 처음은 아니다. 1934년 경성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세민지구라 하여 경성의 하천변이나 임야를 무단 점거한 토막민(土幕民)을 도시 내부에 분산 수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토막민 주거지를 일반 주거지와 분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배제 정책이지만 추방과 외곽에서의 집단 수용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권의 야만적인 빈민 정책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데가 있었다.

경영행정이라는 미명하에 헐값에 매입한 땅을 고가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도 이주민들이 처한 고통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박정희 정권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테러리즘에 다름 아니었다. 오죽하면, 성남시에서 펴낸 『성남시사』조차도 성남의 건설 과정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패작 신도시 건설’이라고 백하고 있을까.

### 죽음을 부르는 ‘빈곤의 현장’

어느 새 길은 수정로로 이어졌다. 이 길은 복개되기 전까지 탄천의 지류인 독정천이 흐르던 곳으로 8·10 사건 당시 성남 주민들이 경찰 지프차를 밀어서 떨어뜨렸던 역사의 현장이다. 기수용 시설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 탄천은 생명의 젓줄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식수를 길어다 먹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용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공동변소와 펌프가 30가구에 하나 꼴이었으니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죠. 급하면 개천가에 용변을 보고 또 그 물을 식수로 길러 먹고……. 천막 하나에 여섯 가구, 여덟 가구가 한 꺼번에 들어가서 캐비닛 같은 걸로 파티션을 하고 살았으니, 그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것이었어요. 1970년 봄에는 전염병까지 돌아서 완전히 이수라장인데도 철로변이나 하천변 철거민을 태운 트럭은 꾸역꾸역 한강을 넘어오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두 시간마다 다니는 버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릴 때 창문으로 기어나가거나 뛰어내리다 보니 온전한 유리창이 하나도 없죠. 그 북새통에 아이가 깔려죽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어요. 일자리도 없죠. 서울에서 날뎠팔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허





팔각정이 있던 자리엔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섰지만 이곳은 당시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놀이 공간,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1971년 경기도 광주를 설명하는 하동근 씨.

허벌판에서 뭘 하겠어요? 굶고 술 먹고 싸우는 일밖에는 할 게 없었던 거죠. 성남 초기의 삼다(三多)가 뭔지 아세요? 술집, 교회, 여관이에요.”

또 하나, 많은 것이 있었다. 복덕방. 1969년 가을부터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분양증 전매행위가 극에 달했다. 경기는 과열되고 전입자가 폭증했다. 1971년 8·10 사건 직후 서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대단지 인구 12만 명 중 전입자 수는 철거민의 1.6배에 달했다. 더욱이 1971년 4월과 5월의 선거는 많은 공약을 남발했고 그것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가 분양 토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면서 개발붐도 사그라들었다.

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단지에 남은 것은 혹독한 굶주림이었다. 주민의 80%가 실업자였고 서울에 나가 날품을 팔려고 해도 버스비 35원이 없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았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산모가 먹을 게 없어서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 정도로 그 당시 생활상은 비참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신흥동 팔각정 터로 향했다. 팔각정이 있던 자리엔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섰지만, 이곳은 당시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놀이 공간,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고 한다.

“이 팔각정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단지 내에 문화 공간이라 할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극장이나 다방이 있다 해도 돈 들고 또 그 형편에 차를 마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구릉 꼭대기에 정자를 지은 거 같아요. 초기 가수용 시설이 다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땐 주변에 집이 없어서 팔각정이 아주 도드라져서 단지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유용한 공간이었어요. 산모 관련 소문이 있었던 집도 바로 이 옆이었어요.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최극빈층이 모여 살았던 ‘빈곤의 현장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동근 씨가 이끄는 대로 연립주택들이 성냥갑처럼 늘어선 비탈길을 타고 내려갔다. 경사가 어찌나 가파른지 맨 꼭대기까지 오르면 정말 ‘달’에 닿을 것만 같은 달동네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분당선 태평역 근처에 있는 성남교회. 1970년 11월부터 광주대단지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했던 곳이다.

“1973년 성남에 들어온 주민교회와 방식은 다르지만 이 교회 전성천 목사도 나름대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죠. 단지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양반이 다 알아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이 죽기만 하면 교회 앞에 시체를 두고 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20구를 처리하기도 했대요. 교통경찰 했던 분한테 들은 얘긴데, 당시 주 업무가 시체 치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던 거죠.”

#### 불타는 광주대단지

1971년 7월 14일, 서울시는 일체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주민들에게 ‘분양 토지 20평을 평당 8,000~1만 6천 원씩에 불하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7월 말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경악한 주민들은 서둘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당국에 ‘대지 가격 평당 1,500원 이하, 대금 10년 연부 상환, 각종 세금 면제, 영세민의 취로 알선과 구호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회신이 없었다. 대책위원회는 곧 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모이자, 뭉치자, 쫓기하자, 시정 대열에’라는 전단이 뿌려졌다.

8월 10일, 여름비가 질척하게 내리는 날이었다. 성남출장소 뒷산에는 새벽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그들은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백 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공약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머리 위까지 치켜들었다.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전 11시에는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양 시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11시 45분을 넘기면서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자!”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로, 성남 군중들은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곧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팔각정 길을 오르는 연립주택 가는 가파랐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 저 끝집 어딘가에 달이 걸려 있을 것 같다.

출장소 옆 관용 지프도 불탔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한 주민들이 대단지를 누비는 동안 진화 작업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긴급 출동한 경찰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기동경찰과 투석전이 벌어지고 광주경찰서 성남지서·순찰차·수진리 남문주유소가 불타는 등 빗속에서 쫓고 쫓기는 난투극은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 서울 시장의 '요구 조건 무조건 수용'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항거는 계속되었다.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하고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그 날의 시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주민 22명이 구속된 그 날의 투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당국은 구속된 22명의 주민을 반공법으로 묶어 간첩이나 정신이상자로 몰았다. 그들은 풀려난 뒤에도 보안관찰을 당했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담론이 '난동'이라는 데서 딱 멈춰 버렸어요. 성남 주민들도 이 문제 들춰내 봐야 동네 이미지만 버린다,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물론 최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재조명되지 않는 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주동자로 찍혀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빨리 찾아줘야 폐인처럼 숨어 지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를 성남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리가 없다. 사건이 재조명되고 당시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근대화 역사는 고장 난 시계처럼 영원히 '야만'의 초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

# 6월민주항쟁, 이제 만화로 만나봐요.

## 만화로 보는 6월민주항쟁 '100°C'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에서 제작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한 '만화로보는 6월민주항쟁 100°C'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6월항쟁이후 세대인 작가 최규석의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진 만화 『100°C』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 시작하여 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엮어 만든 픽션드라마입니다.

"아아, 잊고 있었구나. 20년전의 그날. 그 고통과 분노, 절망과 희망, 열정과 투쟁의 그 지난했던 세월, 그리고 얻어냈던 그 감격과 환희를! ... 그런 그것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는 듯 멋진 그림과 치밀한 구성, 세련된 연출로 그 느낌과 숨결까지 생생하게 만화로 그려 냈다."

박재동(한국종합예술학교교수)



\*작가 최규석 : 대표작으로 『습지생태보고서』, 『공룡들의 슬픈마주』, 『대한민국원주민』 등이 있다.



이 CD롬은 만화로 보는 6월항쟁 '100°C' e-book(163쪽)과 사진슬라이드(104장), 6월항쟁 동영상(2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중학교 2,938개교, 전국고등학교 2,084개교, 전국공공도서관 372곳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인터넷 6월항쟁 기념관 [www.610.or.kr](http://www.610.or.kr) → 전시관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으며 자유게시판에 감상후기를 남기신 100분에게는 씨디를 드립니다.

제작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후원 행정자치부

사단법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시 중구 정동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T. 3709-7691 Email. demo610@hanmail.net 홈페이지 [www.610.or.kr](http://www.610.or.kr)